■ Ford, SUVs의 연료효율 향상 계획 발표

(6월 20일자 EB 2호, 'GM, 에탄올을 연료로 하는 SUVs 생산 계획' 참조)

○ Ford는 연료를 많이 소모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SUVs의 연료 효율을 향후 5년간 25%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함

- 지난 수년간 SUVs와 輕트럭 분야에서 많은 이윤을 내고 있는 Ford의 CEO인 Jacques Nasser는 이러한 계획을 워싱턴에 있는 National Press Club에서 지난 27일에 발표하였음
- 25% 향상 목표가 달성되면 리터 당 주행거리가 2.1 ㎞ 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데 뉴욕 타임즈紙는 이를 두고 자동차의 연료 절감을 향한 '의미있는 첫 걸음'이라고 보도하는 등 언론의 호평을 받음

○ Ford의 이번 발표는 회장인 William Clay Ford Jr.가 自社의 환경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인 동시에 그린마케팅 전략의 일환임

-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연료경제기준[1]을 강화하면 신형 차량의 가격은 상승되는 반면에 연비를 올리기 위해 소형화함으로써 안전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연료경제기준 강화안에 반대하고 있으나,
- Ford는 미국인들이 연료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선호하므로 현재의 시장 점유율[2]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

○ Ford는 이를 위해 주로 가벼운 재료를 사용해 차의 중량을 줄이고 엔진과 변속기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함

- 또한 휘발유와 전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SUVs 모델을 시장에 내 놓을 예정인 Ford는 이 또한 연료효율 25% 향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---

1) 오일 쇼크로 인해 자동차 업계가 보다 연료 소모량이 적은 자동차를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 1975년에 제정한 기준으로서 승용차는 약 11.7 ㎞/ℓ, 미니밴, SUVs, 픽업 등의 소형 트럭은 8.8 ㎞/ℓ임

2) Ford는 미국 내에서 연간 80만 대의 SUVs를 판매해 시장의 20%를 점유하고 있음

○ Daimler Chrysler 및 GM 역시 자동차의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연료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은 자동차 업계의 전반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전망됨

- Daimler Chrysler는, 의회에서 동급 차종에 비해 3,000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승인해 준다면, 휘발유와 전기를 동시에 쓸 수 있는 Dodge Durango의 하이브리드 SUVs 모델을 시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음
- GM도 지난 3년간 SUVs와 픽업 트럭의 연비를 5% 가량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둠
  - 그러나 GM은 이를 자사 모델의 출력을 높이는데 활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연비 상승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였음

기 준 학(02-3669-4097, hiemjhki@shinbiro.com)